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성차를 중심으로

김 백 수 · 이 정 화*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생활과학연구소*

Determinants of Middle Aged's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 Focused on Gender

Kim, Beag Su · Lee, Jeong Hwa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iddle aged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and to explore the effect of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relationships on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is research is also focused on gender differences in social activities, social relationships and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The survey data was gathered from 424 middle aged citizens who live in the Gwangju & Jeonnam area,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les, t-test,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ith SPSS win 18.0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Most of the respondents perceive an importance of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relationships. Middle aged women enjoy leisure activities such as learning and religious activity more than men. Middle aged men engage in hobby activities more than women. And most of respondents perceive they are making an effort to keep a relationship with spouses, family & friend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in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between gender groups, but the variables which have an effect in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are different between gender groups.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relationships play an important role in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of Middle aged men and women. At the same time, Social activities and Social relationships have more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preparation of women. Implications of the results are discussed.

Key words: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social activities, social relationships, gender differences

I. 연구목적 및 필요성

우리사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노인인구증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수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건강수명의 증가는 활발한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활발한 사회참여는 건강수명을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노년기 사회참여,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0%를 약간 넘게 나타나고(통계청 2009), 종교단체와 사교단체 외에 문화 활동이나 자원봉사활동 등 노인의 사회단체활동은 매우 낮은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여가활동은 매우 소극적이어서 TV시청, 휴식 및 수면, 사적인 가족 및 친구모임 비율이 높고 여행, 종교, 스포츠 활동, 봉사활동, 자기계발 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경제적 측면이나 건강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반면, 사회적 역할 상실이나 사회적 관계의 불충분함으로 인해 느끼는 외로움, 소외 등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고 있다. 노년기에는 은퇴, 가족 및 친척 친구 등 가까운 지인 등의 사망으로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어 겪는 경험을 한다. 특히 급속한 핵가족화 추세에 따라 노부부가 성인자녀세대와 함께 살지 않고 노부부만, 혹은 노인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은 노년기 경제적 독립에의 필요성과 함께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더욱 요구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사회의 노인 자살자 수는 1990년 314명에서 2007년 3,541명으로 17년간 약 11.4배 증가해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노인자살증가율을 기록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2010). 물론 이러한 노인의 자살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겠지만 노년기 다양한 역할상실을 대체할만한 새로운 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관계 만들기에 실패한 것이 매우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사회에서 노년기 우울, 자살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노년기에 경험하는 역할상실이 곧 노년

기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역할상실을 경험한 이후 스스로에게 새롭게 다른 역할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젊었을 때부터 지속해 온 다양한 사교모임, 취미, 운동, 봉사모임이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노후 소외감, 고독감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해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준비가 보다 이른 나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나 교육과 일과 여가활동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Havighurst의 이론처럼 중년기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참여활동은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다. 종단연구 결과에서도 노년기 삶은 중년기의 삶의 모습, 생활양식 등에 크게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Moen & Wethington 1999; Willis & Reid 1999).

특히 현재의 중년층은 상당 수가 베이비부머에 해당하는 세대로서, 그들의 절대적 인구규모 및 우리나라 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 그리고 이들이 곧 노년기에 진입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 연령집단의 노후준비는 머지않은 미래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측면의 노후준비를 살펴본 연구가 가장 많고(김기태 2004; 박창제 2008; 성말순 2005; 이은경 2002), 여기에 여가준비, 주거준비, 사회적 준비를 첨가하여 연구한 경우가 최근 들어 등장하고 있는데(김인숙 2004; 배문조 2009; 송석진 2004; 신은식 2002; 이정화 2009; 이지은 2000) 노후준비로서 사회적 측면만을 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광역시나 농촌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잠재 고령층, 현재의 중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현재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 그리고 사회적 측면의 노후준비 정도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 때, 남성과 여성이 점유하는 사회적 역할의

차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몰입정도 등에 있어서의 차이에 주목하여 두 성을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젠더 즉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성차는 사회문화적 과정이기도 하다. 역할이론의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은 생애과정에서 서로 상이한 역할을 점유하게 되고 그러한 역할은 일상생활의 경험을 다르게 구조화시키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남녀간 차이가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첫째, 중년기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 및 그 차이를 파악하고, 이들의 현재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가 미래 사회적 준비지각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현재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노후준비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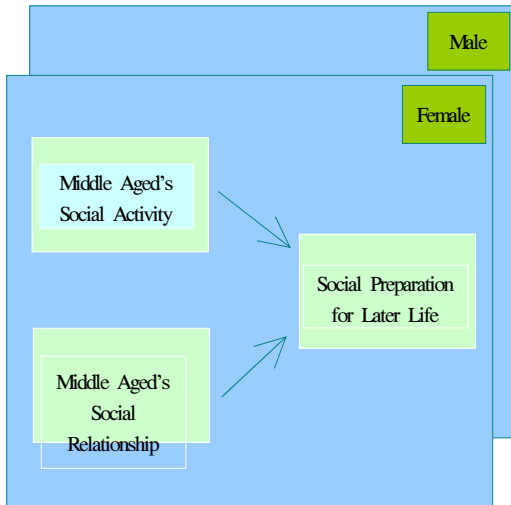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II. 선행연구 고찰

1. 중년층 사회적 노후준비

중년층은 인간의 생애주기 중 개인적인 역량

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동시에 노년기가 가까워지면서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적 지위상실을 경험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Havighurst (1972)는 중년기를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그 절정에 달함과 동시에 노화에 따른 생물학적 변화도 느끼는 시기 그리고 개인적 요구나 필요성 뿐만 아니라 유기체 내부의 변화와 환경적 압력에 의해 사건이 유발되는 시기라고 하였다.

중년층을 구분할 때 중년기의 역연령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Bühler(1968)는 45~65세, Levinson (1978, 1996)과 Erikson(1976)은 40~60세, Havighurst (1972)는 35~60세로 하였다(김애순, 2002에서 재인용). 중년층과 노후준비에 대한 관계성을 연구했던 임경자(2002)는 35~60세, 임희정(2003), 김양혜(2006)는 40~60세, 강유진(2005)은 30~59세로 각자의 연구 주제와 내용에 맞게 구분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40~60세까지로 중년층을 구분하였다.

노년기를 특징짓는 중요한 역할상실(role losses)은 은퇴, 사별로 시작되고 이는 직업역할과 매우 가까운 가족과의 역할상실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제로 노년기 역할상실은 사회참여감소, 사회적 관계 단절과 연결된다. Lowenthal과 Clayton(1968)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은 노년기 역할상실에서의 충격완화와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한(최신덕·김모란 1998)이래 노년기 사회적 관계의 역할은 수많은 논문들에서 지지되고 있다.

사실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 다양한 가족·사회적 역할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에는 배우자나 친구, 친척, 직장동료, 이웃 등의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장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도 자신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중년층의 노후불안수준을 분석한 이정화(2009)의 연구결과, 중년기의 남녀는 모두 건강에 대한 염려가 가장 컸고(84.0%), 다음으로 경제력(57.1%), 역할 없음(21.2%), 부부해로(14.9%)순으로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해로나 역할부재, 즉 가족 및 이웃 친구와의 관계와 같은 사회적 관계나 역할상실에 대한 불안은 건강과 경제력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

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회적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사회 노인 우울, 자살률에 비추어 볼 때, 노년기 사회적 노후준비는 매우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또한 중년기의 발달과업 성취는 노후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고령화현상을 훨씬 더 일찍 겪어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미국사회에서 발행되는 상당수의 은퇴준비 관련 서적들이 은퇴 후 경제적 준비와 더불어 사회적 준비를 강조하고 있다. Warner(2004)는 은퇴준비에 관한 저서에서 노후 자산관리보다 은퇴 후 가족, 친구, 인생의 멘토 찾기 등 사회적 관계와 역할을 찾는 방법과 그것의 중요성에 대해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노년기의 사회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었다. 노후준비는 곧 경제적 준비라는 인식으로 경제적 부분을 주로 부각시켜왔고 사회적 노후준비는 노후준비의 일부 영역으로 다루어져왔을 뿐이다. 송석전(2004)은 사회활동, 여가 및 취미활동 준비로, 이지은(2000)은 노후 준비 및 노후계획의 일부분인 '노후여가생활계획 여부 및 만족도'로 노후 사회적 측면을 다루었고, 송명숙(2002)은 '사회경제적 차원의 노후대책' 영역에서 종교활동, 사교활동, 학습활동,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할 의사가 있는지로 사회적 측면의 노후준비수준을 측정하였다. 이처럼 사회적 노후준비는 경제적 노후준비나, 신체적 노후준비에 비해 정서, 심리, 경제적 측면과 중첩되어 다소 모호하게 구분, 연구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노후준비를 그동안 노후준비 연구에서 사회적 측면의 노후준비에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 온, 노후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관한 준비정도로 정의하고 '여가활동 및 취미활동 준비정도', '노후 봉사활동을 할 의향', '노후 사회적 활동을 함께 할 친구나 이웃이 얼마나 있는지'로 사회적 노후준비 수준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관련연구를 통해 살펴보면, 이지은(2000)의 연구결

과에서는 중년기 직장남성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집단이 노후 여가생활계획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송명숙(2002)은 중장년기 여성의 노후대책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차원의 노후대책에 교육수준, 소득, 남편의 직업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척도의 차이로 인해 단순비교하기 어렵지만 사회적 노후준비도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수에 의해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전반적인 노후준비수준에 있어서 성에 따른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으나, 남성이 더 적극적이라는 연구(임경자 2002), 일부 및 전체영역에서 여성의 준비수준이 더 높다는 연구(조추용 등 2009; 황승일 2000)등 성에 따른 차이는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또한 그동안 노후준비 연구들이 남성, 여성만을 표집하거나, 남성과 여성을 하나의 연구모형에 넣고 여러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하나로 성 변수를 포함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노후준비에 있어서 젠더에 보다 주목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외에 전반적인 노후준비 관련 연구에서 관련변수로 나타난 연령, 학력, 종교, 현재의 경제적 수준 등이 역시 사회적 노후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간주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외에 현재 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노후준비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경제적 노후준비 관련문헌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준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사회인구학적 특성변인 외에 현재의 재산, 소득, 부채, 주택소유여부, 부동산 자산총액, 현재 주관적 경제상태인식 등 주로 경제와 관련된 변수들이었다(박창제 2008; 배문조·전귀연 2004; 어윤경 2007; 홍성희·곽인숙 2006). 건강한 노후를 위해 평소 음주, 흡연을 삼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활습관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 지로 신체적 노후준비 수준을 파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변수들이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 얼마만큼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아는 것이 경제적, 신체적 노후준비에 구체적인

제언을 할 수 있듯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있어서도 현재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중년층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어떤 활동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 각각 파악할 필요가 있다.

2. 중년층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의 개념과 정의는 매우 광범위한데 어떤 경우에는 사회활동이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기도 한다. 사회활동이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대외적인 관계와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으로 자신의 몸 관리와 집안일, 이웃방문, 종교활동, 야외운동, 자원봉사나 돈을 벌 수 있는 생산 활동 참여 등 자신의 생존과 독립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김영범 · 이승훈 2008). 노년기 사회활동으로서 여가 활동은 신체적 건강의 증진, 사회적 접촉기회의 제공, 삶에 대한 활기 및 만족감의 증진, 자신에 대한 신념과 자기 신체에 대한 자신감 부여, 유용감과 자기 가치성의 확신,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경험케 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Leitner & Leitner 1997). 또한 Ertel 등(2008)은 Health and Retirement Study의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노인들의 사회통합과 기억력 보존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결과, 시간경과에 따라 노인의 기억능력 평균은 1998년 11.0점에서 2004년 10.0점으로 떨어졌지만 결혼상태, 자원봉사활동, 부모자녀 및 이웃간의 접촉으로 규정한 사회통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노인들의 경우 기억력 감퇴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황종남 · 권순만 2009).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정신적 고독에 노출될 우려가 큰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는 노인으로 하여금 소속감과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게끔 하여 정서적 제어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관계는 노인의 생활과 행동수행에 지침을 제공하여 노인의 정체감과 행동에 선명한 목적의식을 주고 삶의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완충내지 경감작용을 하며 결국 노후를 건강한 삶으로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Cohen & Hoberman

1983; Kaplan 1975; Mueller 1980).

한편, 남성과 여성이 점유하는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은 직업역할과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집중되어 왔고, 여성은 가족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실제로,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 점유상태를 살펴본 한경혜 등(2002)의 연구에서는 가족역할인 부모역할과 배우자 역할에 남성보다 여성의 역할점유율이 높았고, 직업역할에 있어서는 여성보다 남성의 역할점유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남녀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 역할은 직업역할이었다. 최근 여성의 직업역할, 남성의 가족역할에 대한 강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는 관계적이고 정서적 측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에게 다른 사회적 역할이 존재하고 있다.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 연구에서(한경혜 등 2003) 여성은 사회적 관계망에서 배우자와 친족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성은 비 친족원이 관계망에 포함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은 가족 및 친족의 보호 및 유지 역할을, 남성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수행의 주요 장에서의 남녀간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김명자 1998). 노년기는 중년기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중년기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사회적 관계에서 차이는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광주·전남 중년층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러한 관계가 남성과 여성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년층 남녀의 현재의 사회관계망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노후준비에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보다 젊은 성인들에게도 사회활동유지, 사회적 유대관계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지각에 현재의 여가활동, 사회활동, 사회적 관계가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광주·전남지역 즉, 도시지역(광주광역시, 광양시, 순천시)과 농촌지역(영광읍, 해남읍)의 40~50대 중년층 성인 남녀 450명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5일부터 2006년 6월 20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로 중·고등학교를 선정, 각 학교별 4개 학급씩을 임의로 표집하여 그 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조사하였다. 설문지는 배포 후 수거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424부가 분석되었다.

2. 주요변수의 구성과 내용

1)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는 노년기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 여가활동여부, 참여하는 여가활동 종류, 여가활동참여정도, 사회봉사활동 참여정도, 배우자나 가족, 친구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노력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노년기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노년기에 취미활동이 있는 것, 사회활동을 하는 것, 좋은 부부관계,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은 ‘매우중요하다’에서 ‘전혀중요하지 않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사회활동은 여가활동과 사회봉사활동으로 구성하였는데 여가활동의 특성으로는 여가활동유무와 취미활동, 운동, 학습,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참여하는 여가활동 종류, 그리고 여가활동 참여정도를 질문하였다. 사회봉사활동정도는 ‘귀하는 현재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을 하고 계십니까?’로 묻고 ‘전혀 없다, 거의 하지 않는다, 조금씩 기회가 있을 때 한다, 정기적으로 하

고 있다’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좋은 가족 관계를 위한 노력정도와 친구들과의 모임 참여 노력 정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관계 척도는 ‘배우자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와 ‘친구들과의 모임에는 늘 참석한다’ 두 문항, 각각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에 이르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사회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척도는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송석전 2003; Reeves & Rafferty 2005)을 참고로, 사회적 측면의 노후준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나는 노후에 할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나는 노후에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 ‘노후에 취미나 여가를 같이 할 친구나 이웃이 있다’로 구성하였고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3문항의 평균을 구하여 사회적 노후준비 복합지수를 만들었는데, 사회적 노후준비 변수의 신뢰도 계수는 .64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평균 표준편차 등 기술통계분석과 성별, 집단별 차이검증을 위한 교차분석(χ^2), 독립표본 t-test, 사회적 노후준비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으로서 사회인구학적 변수 뿐만 아니라, 중년층의 현재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들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노후준비에 갖는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WINDOWS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 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 153명(36.1%), 여성 271명(63.9%)으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40~44세가 44.8%, 45~49세가 34.4%, 50세 이상이 20.8%로 나타나 남녀 모두 40대가 가장 많았다. 거주지역은 도시 292명(68.9%), 농촌 132명(31.1%)로서 도시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종교의 경우 282명(66.5%)이 종교를 갖고 있고 142명(33.5%)은 종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종교가 있는 경우가 남성은 87명(56.9%), 여성은 195명(72.0%)으로서 남녀 모두 과반수가 종교를 가진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은 남성이 91.5%이고 여성은 83.8%로 나타나 남성의 교육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직업에 있어서 남성은 약 97%가 직업이 있었고, 여성은 약 44%가 주부이거나 직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직업역할에서의 성차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N(%)		
	Characteristic	Male	Female	Total
Age	40-44	46 (30.1)	144 (53.1)	190 (44.8)
	45-49	68 (44.4)	78 (28.8)	146 (34.4)
	50 and more	39 (25.5)	49 (18.1)	88 (20.8)
Region	urban	98 (64.1)	195 (72.0)	293 (68.9)
	rural	55 (35.9)	76 (28.0)	131 (31.1)
Religion	yes	87 (56.9)	195 (72.0)	282 (66.5)
	no	66 (43.1)	76 (28.0)	142 (33.5)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9year)	63 (8.5)	44 (16.2)	57 (13.4)
	high school(12year)	74 (48.4)	127 (46.9)	201 (47.4)
	college&over(14year+)	66 (43.1)	100 (36.9)	166 (39.2)
	professional, office work, management	48 (31.6)	63 (23.7)	111 (26.6)
Job status	sales, service work	69 (45.4)	23 (8.7)	92 (22.0)
	self employed, farmer	29 (19.1)	47 (17.7)	76 (18.2)
	blue-collar worker	1 (0.7)	16 (6.0)	17 (4.0)
	housewife, unemployed	5 (3.3)	117 (44.0)	122 (29.2)
Household monthly income (Unit: 10,000₩)	under 199	26 (17.0)	82 (30.3)	108 (25.5)
	200 ~ 299	46 (30.1)	59 (21.8)	105 (24.8)
	300 ~ 399	33 (21.6)	50 (18.5)	83 (19.6)
Marital status	400 and more	48 (31.4)	80 (29.5)	128 (30.2)
	married	148 (96.7)	244 (90.0)	392 (92.5)
	not married	5 (3.3)	27 (10.0)	32 (7.5)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10 (6.5)	17 (6.3)	27 (6.4)
	good	83 (54.2)	131 (48.3)	214 (50.5)
	normal	42 (27.5)	80 (29.5)	122 (28.8)
	not good	18 (11.8)	38 (14.0)	56 (13.2)
	very bad	0 (0.0)	5 (1.8)	5 (1.2)
Total		153 (36.1)	271 (63.9)	424 (100.0)

를 보여주었다. 남성의 직업은 판매 서비스직, 전문관리직, 자영업 순이었고, 여성의 직업은 전문주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전문관리직, 자영업, 판매서비스직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에서는 조사대상자 중 절반(49.8%)정도가 가구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구 월소득이 200만원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결혼지위에 있어서는 전체 대상자 중 392명(92.5%)이 현재 결혼한 상태이고 32명(7.5%)은 현재 결혼상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남성은 96.7%(148명)가 결혼상태이고 여성은 90.0%(244명)가 결혼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좋다 27명(6.4%), 좋은 편이다 214명(50.5%), 보통이다 122명(28.8%), 나쁜 편이다 56명(13.2%), 매우 나쁘다 5(1.2%)로 나타나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다.

2. 노년기 사회적 활동 및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현재 사회적 활동 및 관계특성

1) 노년기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에 대한 중요성 인식

먼저, 노후의 사회참여활동, 취미여가활동, 배우자 및 친구와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Table 2).

조사결과,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점수범위 1~5에서 4.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취미와 여가활동을 갖는 것’, ‘사회활동을 하는 것’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 네 문항은 1~5점의 점수 범위에서 모두 4점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년층 남녀 모두 노년기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중 ‘노년기에 좋은 친구를 갖는 것’의 중요성에는 성차가 나타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년기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Perception about the importance of social activity & social relationships in the elderly life

Category	Mean(SD), N=424			t
	Male	Female	Total	
Doing social activity	3.93 (.944)	4.10 (.877)	4.04 (.904)	-1.82
Having hobby & leisure activity	4.13 (.915)	4.30 (.851)	4.24 (.877)	-1.87
Keep the good couple relationships	4.66 (.727)	4.64 (.763)	4.65 (.749)	.31
Having good friends	4.40 (.772)	4.56 (.728)	4.50 (.747)	-2.10*

*p< .05

2) 중년층의 사회활동 특성

(1) 여가활동 참여

여가활동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결과(Table 3), 59.3%가 여가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참여하는 여가활동이 없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는데 성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가활동 참여 종류에 대해 질문한 결과(Table 3), 운동 115명(45.6%), 취미 88명(34.9%), 종교 75명(29.9%), 학습 19명(7.5%)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여가활동 내용에 성차가 있어, 남성은 취미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반면, 여성은 학습, 종교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활동의 경우 여성은 약 37%, 남성은 약 17%가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차이가 컸다. 이는 성에 따라 여가활동의 종류 및 영역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가활동 참여정도에 대해서는 ‘매일’ 참여하는 경우 41명(16.3%), ‘일주일에 한두 번’ 122명(48.4%), ‘한 달에 두세 번’ 42명(16.7%), ‘한 달에 한번’ 37명(14.7%), ‘일 년에 한두 번’ 10명(4.0%)으로 조사되었다. 즉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성에 따른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leisure activities

					N(%)
Category		Male	Female	Total	χ^2 (t)
Regular Leisure activities	yes	89 (58.2)	162 (59.8)	251 (59.3)	.704
	no	64 (41.8)	108 (39.9)	172 (40.7)	
	total	153 (100.0)	270 (100.0)	423 (100.0)	
Kinds of leisure activities ¹	hobby	40 (44.9)	48 (29.6)	88 (100.0)	2.45*
	exercise	47 (52.8)	68 (41.4)	115 (100.0)	1.74
	learning	2 (2.2)	17 (10.5)	19 (100.0)	-2.38*
	religion activity	15 (16.9)	60 (37.3)	75 (100.0)	-3.44**
Degree of leisure activities	one • two times a year	4 (4.5)	6 (3.7)	10 (4.0)	2.122
	one time a month	12 (13.5)	25 (15.3)	37 (14.7)	
	two • three times a month	18 (20.2)	24 (14.7)	42 (16.7)	
	one • two times a week	39 (43.8)	83 (50.9)	122 (48.4)	
	every day	16 (18.0)	25 (15.3)	41 (16.3)	
	total	89 (100.0)	163 (100.0)	252 (100.0)	

¹ : Multiple response item

*p< .05, **p<.01

(2) 사회봉사활동 특성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한 사회활동 참여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Table 4), 51명(12.2)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149명(35.6%)은 종종 참여하며 135명(32.2%)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84명(20.0%)은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 중 사회봉사활동에 거의 참여하지 않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59.6%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48.1%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회봉사활동 참여가 더 소극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중년층의 사회적 관계 특성

중년층의 사회적 관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배우자나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정도와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려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Table 5). 남녀 응답자 모두 배우자나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정도에 대한 질문에 90% 이상이 매우 노력하거나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social activities

					N(%)
Characteristic		Male	Female	Total	t
Degree of social activities (including volunteer activities)	regular	13 (8.6)	38 (14.2)	51 (12.2)	2.01*
	often	48 (31.8)	101 (37.7)	149 (35.6)	
	seldom	58 (38.4)	77 (28.7)	135 (32.2)	
	nothing	32 (21.2)	52 (19.4)	84 (20.0)	
	total	151 (100.0)	268 (100.0)	419 (100.0)	
mean		2.28	2.47		

*p< .05, **p<.01, ***p<.001.

Table 5. Characteristics of social relationship

				N(%)	
Characteristic	Male	Female	Total	χ^2	
Effort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spouse & family	very much	56 (36.6)	114 (42.1)	170 (40.1)	2.51
	often	82 (53.6)	130 (48.0)	212 (50.0)	
	normal	15 (9.8)	25 (9.2)	40 (9.4)	
	seldom	(0.0)	2 (0.7)	2 (0.5)	
	not at all	(0.0)	(0.0)	0 (0.0)	
	total	153 (100.0)	271 (100.0)	424 (100.0)	
Effort to meet friends	very much	38(24.8)	64(23.6)	102 (24.1)	3.51
	often	66(43.1)	97(35.8)	163 (38.4)	
	normal	32(20.9)	69(25.5)	101 (23.8)	
	seldom	15(9.8)	37(12.9)	50 (11.8)	
	not at all	2(1.3)	6(2.2)	8 (1.9)	
	total	151 (100.0)	273 (100.0)	424 (100.0)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에 대해서도 ‘매우 노력하고 있거나 노력하는’ 경우가 62.5% (265명)로 나타나, 중년층들은 전반적으로 현재 가족과의 관계 및 친구관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적 노후준비

다음은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Table 6).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응답은

Table 6. Mean scores of the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Category	Gender		Total	t
	male	female		
I'm preparing for leisure activities & hobby in my later life	3.37	3.29	3.32	.77
I want to join social activities such as volunteer in my later life	3.60	3.99	3.85	-4.11***
I have friends & neighbors to share leisure time together in my later life	3.59	3.73	3.68	-1.55
Total	3.52	3.67	3.61	-2.02

*p< .05, **p<.01, ***p<.001

전체 평균이 3.6점으로(점수범위 1~5점), 비교적 높게 나타나 조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할 여가활동 및 취미생활을 준비하는 지 묻는 문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3.3)를 보였으나, 노후사회활동준비와 관련하여 노후에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문항에는 가장 강한 긍정(3.85)을 보였고, 노후에 시간을 같이 보낼 친구나 이웃이 있는 지 묻는 문항에서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성차가 나타난 문항은 노년기에 사회봉사활동을 할 의향에 관한 것이었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더 호의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여가활동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서, 노년기에도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3. 중년층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분석

다음은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찾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Table 7).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노후준비 결정요인으로 현재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가 갖는 의미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활

동 및 사회적 관계가 사회적 노후준비에 갖는 설명력을 파악하기 위해 위계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성차를 보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모델 1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연령, 거주 지역(도시/농촌), 종교, 교육수준, 직업유무, 가구월소득, 결혼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와 같은 사회인구학적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라는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델 2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특성을 추가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여가활동참여여부, 사회봉사활동참여정도,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 노력, 친구와의 모임에 적극 참여 변수가 포함되었다.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는 .5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남성 모델을 살펴보면, 모델 1에서 광주 전남 중년층 중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조사대상자 중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사회적 노후준비를 2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거주지역, 종교, 주관적 건강상태로 나타났다. 광주 전남 중년층 남성은 도시에 사는 경우, 종교가 있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 남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중년기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특성 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모델 2에서는 설명력이 20% 더해져 총 41%가 되었고 모델 1에서 사회적 노후준비에 유의하게 작용했던 주관적 건강의 설명력은 사라지고, 종교의 설

Table 7. Determinants of middle aged people's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Dependent variable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male				female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Independent variables	B	β	B	β	B	β	B	β
Age	.02	.04	.01	.03	.01	.02	.02	.03
Region(urban=1)	1.35	.31**	.91	.21**	.75	.16**	.68	.14*
Religion(yes=1)	.88	.21**	.62	.15*	.74	.16**	.41	.09
Education level	.13	.05	.36	.14	.24	.10	.13	.05
Job status (employed=1)	.44	.04	.16	.01	.30	.01	.30	.07
Household monthly income	-.10	-.15	-.11	-.16*	.03	.05	.00	.01
Marital status (married=1)	.56	.05	.28	.02	.27	.04	.48	.07
Subjective health status	.59	.22**	.25	.10	.14	.06	.02	.01
Leisure activities(yes=1)			.76	.18*			1.05	.24**
Degree of social activities			-.24	-.09			-.11	-.04
Effort to keep good relationship with spouse & family			.58	.17*			.56	.18**
Effort to meet friends			.79	.36***			.66	.33***
Constant	5.33		1.68		7.52		3.26	
R ²	.21***		.41***		.08**		.34***	
R ² change			.20***				.26***	

*p< .05, **p<.01, ***p<.001

명력은 약화되었으며 가구월소득이 새롭게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변수 중에서는 ‘여가활동참여여부’,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노력’, ‘친구와의 모임에 적극 참여’ 변수가 사회적 노후준비에 의미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중년층 남성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종교를 가진 경우, 월 소득이 적을수록, 배우자나 가족과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정도가 높을수록, 친구와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정도가 높을수록 자신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델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모델 1은 광주 전남 중년층 여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사회적 노후준비특성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이 회귀모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중년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를 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특성 요인은 거주 지역과 종교유무였다. 즉 도시에 거주하는 종교 있는 여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특성변수들을 추가로 투입하여 이 변수들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델 2의 회귀모형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설명력이 26% 더해져 총 34%가 되었다. 모델 1에서 사회적 노후준비에 유의한 변수였던 종교는 모델 2에서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변수가 포함되자 그 유의성이 사라졌고, 거주지역은 여전히 의미있는 변수로 남아있었다. 모델 2에서 새롭게 추가된 4개의 변수 중 ‘여가활동참여여부’, ‘가족과 좋은 관계 유지노력’, ‘친구와의 모임에 적극참여’ 변수가 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광주 전남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지각이 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나는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중년기의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 특성은 이들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중고등학교 학부모인 40~50대 중장년층 남녀 424명에게 질문지를 통한 조사를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교차분석, 집단 간 평균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독립표본 t-test,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한 상관분석과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WINDOWS용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노후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에 대하여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보다 ‘관계중심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기적인 여가활동 참여, 참여하는 여가활동의 종류 및 빈도 등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있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활동영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학습, 종교활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취미활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은 남성에게 비해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 참여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의미 있는 새로운 역할 개발은 중년기 여성의 사회적 정체감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김혜경 2000)에 비추어 볼 때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 참여는 중 고령층을 대상으로 앞으로도 계속 강조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활동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결과는 남성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우리사회에서 중년층 남성에게 요구하는 직업몰입과 연결시켜 생각할 수 있다. 가정, 직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중년기 남성들에게 직업활동 이외에, 봉사활동을 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이러한 기회가 은퇴 후 사회봉사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더 나아가 노년기 고독감, 무력감, 우울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범 사회운동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신화경·이준민(2009)의 노년기 여가생활을 위한 중년기 여가에 관한 연구결과에서는 주 여가활동이 휴식이나 낮잠 등 소극적인 여가활동이었는데, 본 조사에서 약 40%는 여가활동이라고 할 만한 것을 하지 않고 있는 반면, 나머지 60%는 운동, 취미, 종교활동, 사회봉사, 학습참여 등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현재의 여가활동참여가 사회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앞으로 점점 더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것이므로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와 함께 보다 다양하고 의미있는 여가 및 사회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분위기와 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배우자나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친구와 함께하는 모임에 참여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주관적인 사회적 관계유지 노력을 파악했을 때 남성과 여성은 모두 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강혜원·조영태(2007)의 연구에서 취미활동과 같은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활동 그리고 노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와 이웃이 있는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소극적이고 낮은 점수 결과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넷째, 사회적 노후준비정도를 살펴본 결과,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봉사활동에의 참여정도가 낮고, 노후에 이를 하겠다는 의지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중년기라는 특성상 사회적 지위와 역할 및 책임이 과중하고 인생과업의 정점에 있는 관계로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한 생각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는 빈 등지 시기가 더 길어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개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못지않게 사회적 노후준비 정도가 곧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사회적 노후준비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노후 사

회봉사활동에 관한 의지는 현재 사회봉사활동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중년기 남성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을/동네단위의 봉사동호회나 주말을 이용한 직장내 봉사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문화를 확대시키고 이러한 활동이 개인의 사회적 노후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광주 전남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도시지역에 사는 경우 사회적 노후준비에 대해 더 자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현재 거주지역이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컸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인 경우 노후에 어떤 사회적 활동, 봉사활동을 할 것인지, 여가나 취미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를 더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은퇴에 대한 개념이 도시지역에 비해 분명하지 않고 여가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유추할 수 있다.

한편, 중년층 남성과 여성에게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특성은 이들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관계가 노년기 사회적 준비의 지표가 됨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남성모델이 경우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사회적 노후준비를 설명하는 정도가 21%가 될 정도로 높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사회적 노후준비에 갖는 설명력이 8%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변수가 추가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각각 20%, 26%의 설명력이 증가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남성에게 중요한 변수였던 주관적 건강변수와 여성에게 중요한 변수였던 종교변수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이는 남성에게 주관적 건강이나 여성에게 종교가 사회적 노후준비에 갖는 설명력을 사회활동 및 사회적 관계변수가 상쇄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현재의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건강이나 종교 이상으로 중년층의 사회적 노후준비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편, 동일한 변수로 구성된 모델이 남성의 사회적 노후준비를 보다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적 노후준비에는 이 모델에서 다루어진 변수 외에 또 다른 중요한 변수들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규명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시, 군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모든 중년층을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는 데 그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결과는 노년기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사회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중요성에 대해 여성이 더 인식하고 있으므로 남성에 대한 사회적 노후준비에의 강조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등 보다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강유진(2005) 한국 성인세대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30, 40, 50대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6(4), 159-174.
 강혜원·조영태(2007) 서울시 남녀노인의 건강 불평등. 한국사회학회지 41(4), 164-201.
 국민일보 쿠키뉴스(2010) 전체 자살자 셋에 하나는 노인. (2010.6.11). <http://news.kukinews.com>.
 김기태(2004) 장년층 노후준비 태도에 관한 연구. 호서대 석사학위논문.
 김명자(1998) 중년기 발달. 서울: 교문사.
 김애순(2002)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서울: 시그마프레스. 37-45.
 김양이·이재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김양혜(2006) 중년층의 노후준비 특성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영범·이승훈(2008) 한국노인의 사회활동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노년학회지 28(1), 1-18.
 김인숙(2004)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혜경(2000) 중년기 전업주부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사회적 정체감. 한국가족복지학 5, 129-153.

박창제(2008) 연령별 재무적 노후준비 유형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139-166.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0(3), 275-297.
 배문조(2009) 중년기 성인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9(3), 1107-1122.
 성말순(2005) 중년여성의 노후생활준비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석전(2003) 중, 장년층의 노후준비의식연구. 공주대석사학위논문.
 신은식(2002) 독신 미혼여성의 노후관련인식과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건국대석사학위 논문.
 신화경·이준민(2009) 노년기 여가생활을 위한 중년기 여가에 관한 연구. 상명대 자연과학연구소 19, 1-17.
 여윤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25(1), 21-36.
 이은경(2002) 중년기부부의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후준비도에 관한 연구. 동부산대학 논문집 21, 715-744.
 이정화(2009) 광주 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임희정(2003) 중년층의 건강상태와 노후준비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주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43), 135-156.
 최신덕·김모란 역(1998) 노년사회학. 서울: 하나의 학사. 142.
 통계청(2009) 2009 고령자 통계.
 한경혜·김주현·김경민(2003)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3(2), 155-170.
 한경혜·이정화·옥선화·Ryff C & Marks N(2002) 중년기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정신건강. 한국노년학 22(2), 209-2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 석사논문.
 황종남·권순만(2009) 중고령자의 사회활동참여와 인지기능과의 관계. 한국노년학 29(3), 971-986.
 Cohen S, Hoberman H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79-125.
 Ertel K, Glymour M, Berkman L(2008) Effects of social integration on preserving memory function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US elderly population.

- American Journal of public 98(7), 1215-1220.
- Havighurst RJ(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David Mackay Co.
- Kaplan M(1975) Leisure: Theory and policy. NY: John Wiley.
- Leitner MJ, Leitner SF(1997) Leisure in later life. NY: Haworth Press.
- Lowenthal MF, Clayton H(1968). Interaction and Adaptation: Intimacy as a Critical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1), 20-30.
- Moen P, Wethington E(1999) Midlife development in a life course context. In Willis SL & Reid JD (Eds) Life in the Middle. San Diego: Academic Press.
- Mueller DP(1980) Social networks: A promising direction for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psychiatric disorder. Social Science and Medicine 14(2), 147-161.
- Reeves MJ, Rafferty AP(2005) Healthy lifestyle characteristics among adults in the United States 2000. Archives of International Medicine 165, 854-857.
- Warner R(2004) Get a Life : You don't need a Million to retire well. NY:Nolo press.
- Willis SL, Reid JD(1999) Life in the Middle. San Diego : Academic Press.